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문헌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전공(석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IT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최고위과정(수료) / 철도청 근무 / 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한국항행학회 회장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수석부회장 / 한국ITS학회 부회장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 /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 / IBS코리아협회 이사 / 한국길포럼 이사 / 한국철도공사철도발전 자문위원 / 연세대학교대학원연합회(18개대학원) 총학생회장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총동창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할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 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가까운 이에게 잘 하라는 옛 말이 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단체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건축사와 ENG. 업무 사이가 멀어 질 수 없는 형제지간이라 할 만하나 잘 교류치 않는(?) 형제 같은 느낌이 들은 필자만의 오해이길 바란다. 건축유관단체에서는 벗어나 있는듯하나 무관할 수 없는 관계 조직이라 판단하였다. "자주 보는데 뻘 난다"는 말에 따라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먼저 손도 내밀고, 얼굴이라도 비치자는 생각이 들었고 흔쾌히 맞아 주었다. 협력은 이성만으론 되지 않는다. 먼저 마음과 감정이 흐르고 교차해야 하는 것일

지난 9월에 면담 승인 후, 최종 일시를 정하지 못하는 다소 불안(?)한 과정을 보낸 다음 11. 7. 에야 그 약속이 실현 되었다. 협회 회관은 본 협회와 멀지 않는 곳에 당시의 건축 상황과 일반적으로 가지는 ENG.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면담 전, 잠깐 동안이나마 홍보팀과의 사전 소개와 검색(?)이 있었고, 어찌면 그것은 서로가 멀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었다. 당초 한 구석에 조금 담겨 있던 ENG.에 대한 선입견은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문 회장님의 밝고 격의 없는 분위기 주도에 따라 배석한 권익수 실장님(기획협력실), 이명진 홍보팀장님, 정장희 기자님과 함께 회장님 인터뷰라기 보단 허심탄회한 대화

의 장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진솔한 마음과 의견 교환은 그런 상황이 더 적절한 게 아닐까 싶다! 가끔 씩의 따뜻한 비판과 공감의 하소연이 양념처럼 곁들인 것도 마치 오래 만나지 못 한 친지들의 만남처럼 자연스러웠다. 점차 복잡다단해지는 세대 변화 속에서, 장차 지식 집약, 창의 산업, 융, 복합을 지향하는 설계용역업이란 동일 성격의 업종이 함께 성장을 도모하려면 조그만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큰 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한 수용은 이제 무엇보다 절실한 덕목이 아닌가. 진정 양 단체와 회원들의 발전을 보고 싶다!

박찬정 정병협 :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헌일 : 좋은 뜻으로 이렇게 찾아 주셔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박 : 그림 우선 연혁을 포함 간략한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 : 우리 협회는 약 5천개 엔지니어링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 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란 명칭으로 출발하였고, 그 이듬해 창립총회의 개최와 설립허가를 얻었습니다. 1982년에는 F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에 가입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으며 2004년부터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을 통해 대외위상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엔지니어링산업발전 방안"이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정부 수탁사업을 비롯하여, 업체 임금 실태나 경영분석 등의 통계청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 업무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법령 제도 개선사업,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조사, 각종 교육 사업, 해외진출 지원, 제 경력확인 등 민원 서비스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의 기술협의회와 12개 지회를 통해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기술 분야의 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체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건축사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업무나 조직체로 볼 때 저희 대한건축사협회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현재 양 단체 간 관계는 어떻게 보시지요?

문 : 양 기관은 설계와 감리를 주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점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설비 및 기반설계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와 건축사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엔지니어링분야는 법률상에서 건설, 정보통신, 환경 등 15개의 기술 분야와 약 100여개의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분야를 금번의 유사 분야 통·폐합을 통해 48개 분야로 재조정 하였는데, 저는 건축분야 또한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진정한 유대관계를 증대·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워야 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협회 간의 사이가 이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 (웃으시며) 양 기관이 상호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나아지리라 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손을 자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사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건축분야의 분들과 지금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건축분야에서 건축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엔지니어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업체가 건축사사무소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도 어렵고요.

박 :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갈수록 서로 협력 관계의 역할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찔한 협회 장남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 쪽에서도 귀담아 들어야겠지요.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관계자와 공식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요. 누구 탓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자기 할 몫이고, 자기 역할에 달렸겠죠. 현재 제일의 관심사는 무엇인지요?

문 :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살펴보면 실비정산(cost)에 보수(fee)를 가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수를 기본보수와 성과 보수(incentive)로 구분하여 기본 보수는 소급 적용하고 성과 보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 대가를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그마저도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일방적 공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맞게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2 FDIC 서울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Beyond Green, The New Paradigm'이란 주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심사인 녹색성장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의 패러다임 구축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FDI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FDIC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 :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단체장이 되셨는데, 15대 협회장에 이어 16대 협회장으로 재선임 되신 배경과 업무적 성과를 드신다면?

문 : 네, 5,000여개 회원사 중에 65%가 건설 분야로서 역대 협회장님들이 건설 분야에서 많이 하셨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하셨지요, 50대가 회장된 것도 처음입니다.

협회가 과거 과기부에서 4년 전 지경부 산하로 바뀌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경부에 엔지니어링과가 설치되고, 법은 물론 R&D사업 등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 주는 등 획기적인 일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대통령보고, FDIC 총회의 서울 개최 완벽준비 등 공약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지키려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박 : 큰 발전의 배경을 이루었군요. 올해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요?

문 : 네, 사업대가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 >실시설계 위주에서 개념 및 기본설계 등 글로벌 설계제도의 도입과 실천 >정부, 지자체 등의 자체설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로 발주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가로 변질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인력의 경력관리를 금년 5월1일부터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연합한 전문 인력의 교육을 준비하기위해 금년 4월말 아시아·태평양 전문 컨설팅개발 프로그램(ASPAC)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DIC)과 국제 FDIC 인증강사 교육에 관련한 MOU를 체결해 현재 교육중입니다.

박 : 지식집약산업분야의 육성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만큼 시급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분야 또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 : 국내는 아직까지 시공 중심의 개도국형 모델(Construction-based Engineering)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형 모델(Engineering-based Construction)로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D의 확대, 대형 국책 프로젝트 중심의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엔지니어링 지원활동을 위해 해외수주 지원금은 큰 폭으로 늘리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해외거점 공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 저희 건축설계용역업 분야의 해외진출도 이전 개별업체 노력만을 두고 볼 게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지원과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엔지니어링 분야와도 다를 게 없겠지요. 함께 협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 : 엔지니어링산업발전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되는 EPC형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CPE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던키는 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엔지니어링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은 실시설계 위주보다는 '개념설계'형의 드로잉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 저희 단체나 건축사들의 주장과 너무 흡사하네요.

소프트웨어나 지식서비스가 시공, 혹은 산업을 리드하고 생산을 유도하는 구조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진 않아요. 회장님 재임 시 저희 건축협회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문 : 네, 그럴 기회가 되면 잘 유념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건축사 단체도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따로 있는 지 잘 모르겠어요. 힘을 키워야 하고, 회원사 입장에서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 군데 등록한다고 쓸데없는 경비가 이중삼중으로 더 나가게 되죠.

다른 시공측보다 우리의 역할이 더 원원 해야 하는 관계죠.

박 : 충고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축설계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 건축이든 외국 건축사에게 의뢰하거나 협력하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엔지니어링 분야는 어떠신지요?

문 : 저희도 그래요. 개선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자세를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민간 부분에서야 자율적으로 하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적 내용이 없는 한 공공기관 설계에 외국 건축사를 불러들일 필요까지야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적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좀 사적인 질문도 하겠습니다. 현재 사시는 집 형태와 그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문 : 아파트입니다. 10여년 살다가 옮기게 되면 좀 새로운 개념으로 지어지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낍니다. 거의 17구 2차량이 되어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정 : 역시 기능적 관점이시네요. 건축사들의 직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시다면?

문 : 우리 모두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법령 얘기를 조금하지요. 건축 쪽에서 제안·제정된 건축기본법도 우리로서는 쟁점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간의 파트너십과 안정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상관없겠으나 지금의 법안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 여건이 성숙되거나 협력 구조가 강구되기 전에 개별 법령을 침해하는 걸 만들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전기, 정보통신 분야가 독립해 나가고, 기계설비 분야나 조경 분야까지 기본법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건축사가 다 한다고 못 박아 놓았는데, 인테리어, 조명, 공공환경 등 그것을 다 건축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오해되고 있어요. 건축사들이 보다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법 관련 논의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만. 건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본법의 취지가 옳다고 보지만 지난날의 패러다임으로 지금의 변화를 보려하니 부적응과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 : 저는 면허 관련 기준도 통, 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엔지니어 관련 면허 수가 15~20개나 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최소한 2~3개로 압축이 되더라 얘기에요.

박 : 보다 열린 자세로 자세한 논의가 절실히 보입니다. 좋은 건축이 좋은 인성, 혹은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지요?

문 : 저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근래 여러 마스크를 통해 전통 한옥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평판이 좋다는 것을 보면 좋은 건축은 누구에게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다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결국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옥에 기거했던 손님과 집 주인의 모습에서도 그런 감정의 교류가 되는 것 같더군요. 저도 자부심이 생깁니다.

박 : 그렇지요. 간접적이거나 그런 좋은 모습을 자주 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지요. 좋은 건축/도시를 위해 각 분야 관계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 :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가꾸어

갔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 잘 부합되는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렵죠. 건축도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설계 각 분야도 잘 조합되어야 하고, 자재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시공이나 관련 행정 지원까지 어느 하나라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건축이 되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내 것, 내 분야만의 주장을 넘어 남의 것도 귀담아 들어 이해하여 수용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좋은 기술보다 먼저죠. 아무리 좋은 기술, 자재,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부리는 사람들이 조화, 협력 관계가 아니면 무용지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 :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생각은?

문 : 저희가 다루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성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타인지는 몰라도 다른 것보단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주택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가 제한적이고 좁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특이한 전세제도로 인해 실 사용자의 선택권이 약해 시장의 불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행복도가 낮은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을 위하여 한다는 이중적인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차별성을 지니고서 평등을 주장하죠. 투기는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 집 값 오르기를 바라지요.

좋은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명제로 본다면 결국 좋은 건축문화 환경이 되려면 올바른 정신, 다 함께 잘 살자는 배려가 있어야 점차 그런 환경이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박 : 근본적 측면을 지적해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길 해 주시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건축행사, 혹은 전시회 등에 참여하신 경우와 있으셨다면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문 : 언젠가 건축에 대해 이해를 해보고 가까워지기 위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 건축산업대전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못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재나 장비, 관련 업체에 대한 소개자료 외 미술전시나 관련 서적 등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횡수가 거듭됨에 따라 큰 발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어쨌든 타 분야의 것도 많이 받아 들어서서 서로 도움과 이해도 되고 사업성과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건축의 융, 복합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박 :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유능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CO2 배출 축소 등 환경 보전 및 관리가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할 협회의 활동계획은 있으신지요?

문 : 엔지니어가 여러 환경적 과제의 해결 주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물론이고요.

그에 따른 활동 사항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과제에 대해 개별적이거나 공동의 연구 및 노력을 지원하고 그 기반을 좋게 하는 어떤



활동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정책 개발과 실행, 기술이나 특허 등에 대한 보호와 육성 방안, 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정보나 자료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박 : 상기 사안에 대해 대가 기준, 국내외 정보와 자료 교환/축적, 제도개선 등 준비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 : 제가 알기로도 건축사 업무도 기본적인 것은 남아 있더라도 관련 업무나 내용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어느 한 분야가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끌어 나가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려 나가는 보다 수평적인 네트워크화로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과 과학기술, 재료 및 장비, 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함께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공유부분을 넓혀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와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나 단체 간은 물론, 개별 조직 간의 접촉이 활발해 졌으면 하지요. 보다 공적 조직인 협회가 여러 기회를 통해 자주 그런 교류를 유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이나 녹색 성장의 동반자 같은 경우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 오늘은 짧은 시간인 만큼 자세한 사항을 논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후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 :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정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술이나 건축사를 포함한 창작인 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인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회장님, 혹은 협회차원의 대응책이 있으시면요?

문 : 미흡하지요, 후세 인재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그 기반 환경을 좋게 하는 데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하

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 우리 내부의 생각이나 행태를 고치는데 어쩌면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기심이 유별난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큰 분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만, 남 잘 되는 게 배 아프면 어떻게 함께 성장합니까? 그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나중에라도 나도 도움을 받지요. 작은 이해와 조금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더 큰 것을 잃기 쉽죠.

우리뿐만 아니라 건축용역업계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합심하여 거래 질서를 지키고, 힘들더라도 상대 배려를 해 나가면 결국 서로에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정부도 협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1건당 최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몇 년 지속하니 성과도 나오고 중소기업체로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1년에 1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 : 부럽네요. 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됐는지요?

문 : 2006년부터입니다. 조금씩 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 : 검증과정은 협회가 하나요?

문 :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 : 건축용역업계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곤 있지만 체계적인 공적 지원이 아쉽죠. 직접적인 사업 유발을 위한 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법적 정보 등 지원할 수 있을 방안이야 왜 없겠습니까?

엔지니어링산업분야를 볼 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면 무엇인지요?

문 : 세상에 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겠지요. 건축계도 마찬가지라 여기지만, 예를 들면 연구와 개발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야에서의 최저가 입찰제 같은 것이죠. 정부나 공공기관으로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편적인 처방보다 미래를 좀 더 보았으면 해요. 연계공사를 노린다거나, 기술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덤핑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무슨 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며, 온갖 술수와 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하더라도 장치는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젠 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 : 저희들도 백번 공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꾸준한 노력과 대안 제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화나 대중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는데 엔지니어링협회 나름의 활동이나 홍보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요?

문 : 요즘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서나 지식 정보, 창의 같은 soft skill을 얘기하지요. 우리 분야는 그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갖기 쉬운 데 저도 그런 기술, 지식만이 아닌 인성적인 측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사이의 소통, 사회화를 이루려면 결국 그런 소양이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 또한 좋은 인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해악으로 활용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협회의 주 업무나 시급한 일들로 미루어보면 홍보나 대중화 같은 부분은 아직은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 : 솔직한 말씀이고 저도 이해됩니다.

소통, 융/복합을 통한 창의, 기술 개발 등 상호 시너지 효과의 모색은 시대적 흐름이라 할 만 한데 그를 위한 제일의 관심사는 무엇이신지요?

문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인재모시기, 키우기'를 제일로 봅니다. 세계적 힘은 결국 사람한테서 시작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죠. 굴지의 삼성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급인재를 인재를 유치하라고 했는데,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축계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떠들게 아니라 인재를 모시려면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요. 우선 그를 알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스스로 실력 배양이 안 되면 볼 수도 없지요. 여러 번 언급은 하였습시다만, 그런 실력만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성,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위에 재를 써야지 재가 위에 가면 박덕하여 조직의 번영을 이룰 수 없어요.

박 :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천이 쉽지 않네요.

정말 인화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더 하죠.

기술 분야라 특하나 지식 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시스템이나 컨설팅 기능은 있으신지요?

문 : 아직은 없습니다.

박 : 저희 쪽에서도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공부하곤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건축 환경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에 앞서 우리가 지향하고 가다듬어야 할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축사 업무는 뭘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장이 커지고 복잡다변화 되는 시대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끔씩 활동 영역을 가지고 다룰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 영역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사회적 힘을 키우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다 나뉘어져서는 사회적 주류에 합류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 기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일요.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자기이해 위주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책 이전의 이념이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다툼 일이 없어요. 서로 먹힌다거나, 혹은 이 끌리는 생각보다 서로 잘 활용한다는 주체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되면 정말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끼리 모이면 조금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생물학적 진화에서 이종 교배의 경우 그런 이질적 요소들이 부딪치며 갈등과 융합의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상생의 지혜와 경쟁력을 이루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문화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전 그런 열린 마인드가 아니면 세계 역사,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퇴보되리라는 예상을 여러 석학들이 일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기술인들이 그런 개념에 약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큰 시각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앞장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 정말 진솔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정병협